

法추진위, 정당인 초청간담회

韓國성폭력상담소·韓國 여성회 진화·金富男 사건 대채위·대구여성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정당인 초청간담회를 열고, 성폭력특별법 시안 마련과 전락노의를 구체적인 입법추진활동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李賢淑씨(여성의전화 지도위원)는 「현재 성폭행 규정은 형법·아동법·경범죄처벌법으로 산재해 있어 이들 사이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범죄 보호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가부장적 의식을 탈피해 피해자를 구원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안을 발표한 崔一淑 변호사는 「현재 성폭행 법률은 정신의학·관한 죄로 규정하고 절차면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행은 인간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를 범죄인으로 돌리는 해괴로 규정돼야 하며 친

性폭력 특별법제정 급하다

국회에 청원서·서명운동 펴기로

원회의 신설과 성폭력교도소의 신설, 성폭력법에 대한 치료강제제도 신설, 재판의 비공개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朴英淑의원(新民黨)은 「입법과정에서 진언하기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일차적으로 입법의 기조성과 여성의권을 만이라도 먼저 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를 초월해 6명의 여성국회의원을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鄭玉潭(民自黨)여성국장은 「민주·민중黨 여성국장을 노」인법률위원의 두 말을 나위가 없다며 법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성폭력상담소 등 주최측은 가족법개정 이후 한국 여성계 최고의 이슈가 되고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관련,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및 법제정을 위한 해당안임위에 청원서제출을 목표로 우등생을 전개할 것이며, 추후 여야 여성단체간 연대해 서명운동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敬蘭기자>

중앙.91.9.10.